

# 한국 교회, 어디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라

- 요한계시록 2: 5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를 돌아보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극우 정치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을 찾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교계전문가 6명의 진단과 참석자들의 토론을 통해 한국 교회가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누적되어 온 원인을 찾고 이를 고쳐나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첫발을 떼는 이 공론화 과정에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옥성득

UCLA 교수  
(1차 7월 14일)



박성철

하나세교회 목사  
(2차 8월 4일)



백소영

강남대 교수  
(3차 8월 18일)



권수경

일원동교회 목사  
(4차 9월 1일)



배덕만

기독교연구원느헤미야교수  
(5차 9월 15일)



장동민

백석대 교수  
(6차 9월 29일)

일 시

2025년 7월 14일 ~ 9월 29일, 격주 월요일 19~21시

장 소

성락성결교회 801호 (성수역 1번 출구,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3)

중 계

기윤실 유튜브 생중계  기윤실 

참가비

6만원 (회당 1만원, 기윤실 후원회원 50% 할인)

신청 및 문의

[bit.ly/한국교회연속토론회](https://bit.ly/한국교회연속토론회)

## [연속토론회] “한국교회, 어디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12.3계엄 이후 한국 교회 행태에 대한 회개와 원인 규명을 위한 연속 토론회(5차)

┃ 주 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후 원 야다북스

┃ 발간일 2025년 9월 15일

┃ 편 집 이명진

┃ 디자인 김현아

주소 (04382)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홈페이지 [www.cemk.org](http://www.cemk.org) 전화 02-794-6200 메일 [cemk@hanmail.net](mailto:cemk@hanmail.net)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http://www.cem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야다북스

## 5차 토론회 순서 및 내용

Ⅰ 사회 - 이상민 (기윤실 공동대표, 변호사)

Ⅰ 내용

발제. 트럼프, 근본주의, 그리고 한국교회:

4p

한국 개신교 극우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트럼프주의 이해

- 배덕만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Ⅰ 질의응답 및 토론

[발제문]

## 트럼프, 근본주의, 그리고 한국교회: 한국 개신교 극우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트럼프주의 이해

배덕만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 I. 서론

지난 7월 18일 순직해병특검팀이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 자택,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7월 30일에는 내란특검팀이 경기 평택의 오산 기지를 압수수색 했다. 그리고 8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3시간 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오해를 인정함으로 사건은 빠르게 진화되었다. 같은 날 새벽예배 설교에서 이영훈 목사는 “이번 정부가 앞으로는 교회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구나, 반성하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교회의 신앙활동이 잘될 수 있도록 잘 협력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통해 한국교회와 트럼프 간의 관계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극우 개신교 집회에서 휘날리고,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조하러 올 것이란 믿음이 팽배했었다. 또한,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복음주의자들의 절대적인 지지(80%) 속에 재선에 성공했고, 최근에는 그의 측근들이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서 기독교계 인사들과 접촉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이런 현상들은 한국교회와 트럼프의 관계가 세간의 추측보다 긴밀함을 짐작하게 만들었으며, 이런 관계가 향후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런 상황과 고민을 배경으로, 이 글은 트럼프와 트럼프주의, 이것들과 미국 복음주의 간의 관계, 또한 트럼프와 한국 개신교회의 관계를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에 끼칠 영향을 전망하고, 한국교회를 향한 제안도 덧붙일 것이다.

## II. 트럼프와 트럼프주의

### 1.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1946- )

트럼프는 미국 뉴욕주 뉴욕시에서 부동산 재벌 프레드 트럼프(Frederick Christ Trump Sr.)와 메리 앤 매클라우드 트럼프(Mary Anne MacLeod Trump)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트럼프는 뉴욕 군사학교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가업을 이어받았다. 이후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했고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른 책들을 저술했다. 부동산 사업 외에도 미스 USA와 미스 유니버스, 모텔 에이전시를 소유했다. 현재 트럼프의 재산은 64.9억 달러이며, 2024년 포브스 미국 400대 부자 목록에서 319위를 기록했다.

트럼프는 1980년대부터 정계 진출을 생각했으며,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 시절 동안 의료보험 개혁에 찬성했고, 유색인과 LGBTQ+ 권리, 낙태권 등을 옹호했다. 하지만 2008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매케인을 지지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화당 경선을 1위로 통과한 후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 힐러리를 누르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장악했고, 2019년 12월 트럼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세번째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대통령이 되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어 탄핵은 겨우 피했지만, 악화 된 여론을 극복하지 못하고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 후보에게 패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자, 그의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퇴임 후에도 그의 지지자들의 열성적인 지지와 공화당 내의 강력한 입지 덕분에,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고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 2. 트럼프주의(Trumpism)

트럼프주의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측근 또는 지지 세력의 사상, 성향, 정책 스타일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sup>1)</sup> 이것은 우익 포퓰리즘, 우익 반세계화, 신민족주의 등을 포함하며,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란 슬로건으로 상징된다. MAGA는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이 사용했던 것을 트럼프가 2011년부터 자신의 선거에서 다시 사용한 것이다. 결국, 트럼프주의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결집하면서 그의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 핵심적·결정적 요인이었다. 정태식에 따르면, 사회학자들은 그 승리 요인을 5가지로 정리했다.

---

1)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트럼프주의>) (2025. 9. 13 접속)

먼저, 트럼프는 러스트벨트 지역(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일리노이, 인디애나, 웨스트버지니아, 엡스테이트 뉴욕) 백인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불만을 적절히 만족시켰다. 즉, 트럼프는 이 계급이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발생한 임금 정체, 일자리 상실, 노동조합 해체 등으로 절망과 분노에 휩싸인 것을 간파하고, 그들을 위해 보호무역주의와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들의 국내 복귀 등을 주장했다. 둘째, 트럼프는 여성 대통령 후보에 반감을 지닌 이들을 대신해서 남성우월주의적 사고방식을 자극했다. 그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힐러리를 “고약한 여자”(nasty woman)라고 언급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셋째, 트럼프는 1960년대 시민권 운동 이후 달라진 흑인들의 위상에 위기감을 느낀 백인들을 위해 인종차별적 언어를 거침없이 사용했다. 과거에는 이런 발언이 대중적 반감을 불러왔지만, 트럼프는 주저하지 않았다. 넷째, 트럼프는 9·11 테러 이후 고조된 반이슬람 정서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그는 “이슬람은 우리를 혐오한다”, “엄청난 증오가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해외 무슬림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국내 무슬림들에 대한 특별관리를 제안했다. 끝으로, 트럼프는 노동 계층과 보수적 미국인들의 외국인 혐오 정서에도 맞장구를 쳤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sup>2)</sup>

그 외에도, 권위주의와 메시아니즘을 주된 특징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나는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저만 이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믿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기독교 민족주의(Christian nationalism)도 앞장서서 강조했다.

트럼프 또한 명시적으로 기독교 국가주의 정서를 활용했다. 그는 반복해서 미국이 기독교 유산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만연하고 있기에 그것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으로 그는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조직에서 정치적 발언을 금하는 존슨 수정안이 기독교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며 비판했다.<sup>3)</sup>

이처럼, 트럼프주의는 공화당과 기독교 민족주의의 여러 특징을 공유·계승하지만, 예일대 교수 필립 고노스키(Philip Gorski)의 판단에, “보다 세속적이고”, “보다 반동적”이었다.<sup>4)</sup>

2) 정태식, 『21세기 제국의 정치와 종교』(서울: 한울, 2025), 159-63.

3) 정태식, 『21세기 제국의 정치와 종교』, 167.

4) Philip Gorski, “Why evangelicals voted for Trump: A critical cultural 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 Vol. 5 (2017), 348.

### III. 트럼프와 복음주의

#### 1. 배경: 근본주의와 정치

“원숭이 재판”(스코프스 재판, 1925) 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근본주의자들(극단적 복음주의자들)이 1960년대부터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국 전쟁과 함께 미국 사회를 집어삼킨 “메카시 광풍” 속에서, 일부 근본주의자들이 반공주의의 우산 아래 대중적 관심을 끌었다. 이후, 흑인 민권 운동, 히피 문화와 성 혁명, 베트남 전쟁, 낙태 허용 등으로 1970년대까지 미국 사회가 급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을 때, 그동안 성숙 이원론과 비판적 역사관에 사로잡혀 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온 근본주의자들이 “기독교 미국”(Christian America)을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현실 정치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대의 변화를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그 원인을 “세속적 인본주의”(secular humanism)에서 찾았다. 그들이 비판하는 세속적 인본주의의 특징을 카렌 암스트롱(Karen Armstrong)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 성경의 영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영혼, 내세, 구원과 천국, 정죄와 지옥을 부인하며, 창조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부인한다. 대신, 도덕적 가치는 스스로 결정되고 상황적이므로 절대적인 옳고 그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독특한 역할의 제거를 믿으며, 나이와 상관 없이 동의하는 개인들 간의 성적 자유(혼전 성관계, 동성애, 레즈비언주의, 근친상관 포함)를 믿으며, 낙태, 안락사, 자살의 권리를 믿고, 빈곤을 줄이고 평등을 이루기 위해 미국의 부에 대한 평등한 분배를 믿으며, 환경에 대한 통제, 에너지에 대한 통제, 그리고 그것의 한계를 믿는다. 미국의 애국주의와 자유기업체제의 제거, 군비축소, 그리고 단일한 세계 사회주의 정부의 건설을 믿는다.<sup>5)</sup>

근본주의 내의 이런 움직임은 1970년대에 “기독교 우파”(Christian Right)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근본주의 설교자 제리 폴웰(Jerry Falwell)은 1979년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를 조직하여 공화당 대선 후보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을 지지했고,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녀평등 헌법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 비준 운동을 저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운동에는 개신교 근본주의자들과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들, 유대인들도 상당수 참여했다.

1980년대 후반, 유명한 오순절파 TV 설교자들인 짐 베이커(Jim Bakker)와 지미 스와가르트(Jimmy Swaggart)의 섹스 스캔들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근본주의 진영이 치명상을 입었다. 하지만 근본주의 목사이자 방송인인 팻 로버트슨(Pat Robertson)이 1986년 대선에 출마하고 “기독교 연합”(Christian Coalition)을 조직하면서, 근본주의자들이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가족의 가치(pro-family)를 중심으로 동성애와 낙태, 포르노에 강력히 반대했으며, 학교와 공공장소에서 기독교 신앙의 실천을 보장받기 위해 분투했다. 또한, 그들은 아들 부시(George W. Bush)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헌신했다. 또한, 그가 당선된 후에는 네오콘(Neo Conservatism)과 함께 부시 정권의 막강한 지지 세력으로 기능했다. 비록 오바마 정부의 탄생과 함께 위세가 한풀 꺾였지만, 트럼프의 등장과 집권 이후 “트럼프주의”로 진화하여 현재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sup>6)</sup>

5) Karen Armstrong, The Battle for God: History of Fundamentalism (New York: Ballantine Books, 2001), 271.

## 2. 주요 인물과 매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돕고, 현재에는 그의 측근으로 트럼프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적지 않은 인물들이 포진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들 몇 사람만 소개한다.

### (1) 폴라 화이트(1966- )

화이트는 정규 신학 과정을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1991년 플로리다 템파에서 남편과 함께 첫 목회를 시작했다. 2001년부터 독자적으로 “폴라 화이트 투데이”(Paula White Today)란 방송을 진행했고, 2011년 뉴데스티니크리스천센터(New Destiny Christian Center)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2019년까지 목회했다. 현재는 담임목사직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은퇴한 상태다. 2002년부터 트럼프 집안과 연결되어 지금까지 그의 영적 멘토이자 최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다. 은사주의와 변영신학을 추구하는 그녀는 한결같이 트럼프를 지지하며 그의 정치적 행보에 동참해왔다. 특별히, 화이트는 복음주의 내에서 트럼프의 부정적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주선했다. 2015년 9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모인 기도회에서 트럼프가 “종교의 자유 방어, 이스라엘 지지, 이슬람 국가 제거” 등을 약속하자, 여러 목사들이 그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었다. 2016년 6월에는 뉴욕에서 프랭클린 그레이엄(William Franklin Graham 3rd)과 제리 폴웰 2세(Jerry Falwell Jr.) 등 50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과 트럼프 간의 비공개 모임을 주선하여 트럼프와 복음주의와의 연결고리를 이어주었으며, 타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까지 주선했다.<sup>6)</sup>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화이트는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서 ‘복음주의 자문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에서 기도문을 낭독했다. 2019년에는 ‘공공연락사무소’(Office of Public Liaison)의 ‘신앙과 기회 이니셔티브’(Faith and Opportunity Initiative) 특별 고문으로 임명되었고, 2025년에는 ‘백악관 신앙 사무소’(White House Faith Office) 대표가 되었다. 그녀는 “도널드 트럼프의 손에 오벌 오피스(Oval Office, 대통령 공식 집무실)가 넘어가는 데 폴라 화이트가 도움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란 평가를 받았다.<sup>8)</sup> 하지만 그녀는 통일교 집회에 참석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으며,<sup>9)</sup> 예일대 교수 미라슬로프 볼프는 그녀를 “영향력이 매우 크지만, 신앙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깊이가 가장 얇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비판했다.<sup>10)</sup>

### (2) 제리 폴웰 2세(Jerry Lamon Falwell Jr., 1962- )

미국 기독교 우파를 이끌었던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 토마스로드성서침례교회, 리버티 대학교 (Liberty University) 설립자인 제리 폴웰(Jerry Lamon Falwell Sr., 1933-2007) 목사의 장남이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리버티 대학교 총장이 되었다. 그는

6) 배덕만, 『전광훈 현상의 기원』(서울: 돌함, 2025), 18-20.

7) 정태식, 『21세기 제국의 정치와 종교』, 50-1.

8) 정태식, 『21세기 제국의 정치와 종교』, 50.

9) 이은혜, “트럼프 고문 폴라 화이트 목사, 통일교 행사 참석,” 『뉴스앤조이』(2020. 1. 7)

10) 팀 앨버타, 『나라 권력 영광』(서울: 비아토르, 2024), 361.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과정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이후, 줄곧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로 활약했다. 같은 해에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그는 트럼프를 “미국의 블루칼라 억만장자”, “우리 시대 최고의 선견자 중 한 명”이라고 찬양하면서, 무기 소지권 옹호, 이란의 핵 강국화 저지, 대법원에 보수적인 생명존중 판사 임명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트럼프를 여러 차례 자신의 리버티 채플에 초대했으며, 2016년 뉴욕에서 화이트가 주선한 복음주의자들과의 비공개 모임에선 트럼프를 소개하기도 했다. “단순한 지지자를 넘어 트럼프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sup>11)</sup> 하지만 그는 2020년 성추문에 휩싸여 리버티 대학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 (3)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이엄 3세(William Franklin Graham 3rd, 1952- )

저명한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의 장남인 프랭클린은 “빌리 그레이엄 복음주의 협회”(BGEA)와 국제 복음주의 기독교 인도주의 지원 단체인 “사마리아인의 지갑”(Samaritan's Purse)의 사장 겸 CEO다. 2011년부터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한 그레이엄 3세도 2016년 6월 모임에서 제리 폴웰 2세, 마이크 허커비(침례교 목사이자 전 아칸소 주지사. 현 기독교 방송 TBN 진행자)와 함께 저명한 기독교 보수주의자들 앞에서 트럼프를 소개했다. 그의 “인품과 정직성을 보증하며, 언젠가 하워드 스톤(Howard Stern)의 라디오 쇼에서 자기 딸을 두고 잠자리 농담이나 하던 남자가 미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보수주의자들과 동맹을 맺도록 도운 것이다.”<sup>12)</sup> 그 결과,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의 취임식(2017년 1월 20일)에 진행된 취임식에 초대되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축도를 맡았다. 한편, 트럼프가 여러 형사 소송으로 기소 위기에 처하자, 트럼프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이런 시도들을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미국의 수치”라고 비난했다.<sup>13)</sup>

### (4) 로버트 제프리스(Robert James Jeffress Jr., 1955- )

텍사스주 댈러스에 소재한 교인 14,000명이 출석하는 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다. 그는 설교와 뉴스 출현을 통해 오랫동안 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다. 기본적으로, 동성 결혼과 LGBT 권리, 타종교(이슬람, 가톨릭, 모르몬 등)와 민주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해 왔다. 2012년 선거 전날에 버락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의 미래 통치를 위한 길을 닦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바보”라고 선언했다. 이후, 트럼프와 전직 성인 배우 간의 불륜설이 터졌을 때는 방송에서 “상관없다”고 옹호했으며, 2019년 트럼프에 대한 탄핵 조사가 발표되었을 때는 강력히 반발했다. 트럼프는 이런 제프리스를 2016년 6월 ‘복음주의 자문 위원회’와 ‘백악관 신앙 이니셔티브’의 위원으로 임명했다. 또한, 제프리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날(2017년 1월 20일) 세인트 존스 성공회 성당에서 열린 (트럼프도 참석한) 비공개 예배에서 설교했고, 2021년 자신의 교회에서 드린 성탄 예배에 트럼프를 초청해서 연설하게 했다.<sup>14)</sup>

11) 팀 앨버타, 『나라 권력 영광』, 125.

12) 팀 앨버타, 『나라 권력 영광』, 125.

13) 팀 앨버타, 『나라 권력 영광』, 637.

14) 팀 앨버타, 『나라 권력 영광』, 182.

### (5) 폭스뉴스(Fox News)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폭스뉴스도 트럼프와 복음주의자들을 연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고리다. 폭스뉴스는 글로벌 미디어 거물 루퍼스 머독(Keith Rupert Murdoch)이 소유한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적 상업방송이다. 친공화당적 성향을 보이고, 트럼프에게 가장 우호적인 채널 중 하나다. 이 채널은 세속적 채널이지만 복음주의자들에게 담임목사 설교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기간 중, 트럼프가 다른 후보들보다 더 많이 이 채널에 출연하면서 트럼프와 복음주의자들 간의 접촉이 빈번해졌다. 또한, 폭스뉴스는 2011년 트럼프가 오바마의 출생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오바마가 “미국인이 아니라 케냐에서 태어난 무슬림”이라고 집요하게 보도했고,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계속 송출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수의 복음주의자들이 주류 언론을 불신하게 되었으며, 폭스뉴스를 통해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식과 진실의 비밀스러운 목소리에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한마디로, 트럼프와 폭스뉴스의 미디어 활용 전략은 복음주의자들의 공포와 증오 정서의 충실하고 신속한 반응을 유도했고 그들의 정치적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up>15)</sup>

### 3. 접점

그 어떤 종교들보다 신학적·도덕적 보수주의를 견고하게 고수해온 복음주의는 상식적으로 트럼프와 공존할 수 없는 관계였다. 그의 출현 전까지, 복음주의자들이 지지해온 전통적·전형적 후보들과 여러 면에서 극단적으로 달랐기 때문이다. 양자의 차이에 대한 정태식의 정리를 인용해보자.

트럼프는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복음주의와는 조화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공직 경험이 없었으며 그가 지닌 부와 명성 또한 부동산 거래와 카지노 운영 등을 통해 형성되었다. 또한 규범 파괴적이며 무례한 언사를 남발하는 일탈적인 인물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 당내 경선부터 대선 캠페인 내내 트럼프를 따라다닌 것은 도덕성 문제였다. 그는 두 번 이혼했고, 혼외 관계를 자랑삼아 떠벌리기도 했으며, 성인용 방송 쇼에 나가 전통적인 부부 관계로부터의 일탈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또한 성추행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장애인을 조롱하며 소수 인종을 모욕했다. 트럼프의 비도덕적인 행태는 대선 후보의 도덕성을 매우 중시하는 복음주의의 가치와 상당히 어긋나는 것이었다.<sup>16)</sup>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공직자들에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여 빌 클린턴(Bill Clinton)의 스캔들을 맹렬히 비난했던 복음주의자들, 특히 종교적 우파들이 어떻게 트럼프를 지지하여 그에게 몰표를 던질 수 있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 팀 앨버타는 다음과 같이 해답을 제시했다.

15) 정태식, 『21세기 제국의 정치와 종교』, 153.

16) 정태식, 『21세기 제국의 정치와 종교』, 155.

2015년 여름,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아론의 황금 송아지도 부럽지 않을 만큼 화려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쯤에는 “미국은 나락에 빠졌고,” “기독교가 공격받고 있다”는 두 가지 인식이 복음주의 내에 널리 퍼져 있었다. 트럼프는 이를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그는 교회 강단과 폭스뉴스 대기실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는 신앙 지도자들을 곁에 두고, 겁에 질린 미국 기독교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했다. 낙태에 반대하는 ‘생명 보호’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보수적인 목사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보수적인 교회들을 폐쇄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라고 의심받던 ‘존슨 수정 헌법’을 뒤집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맹세했다. 사실, 이는 영적·지정학적 의미가 많은 중대한 결정이었지만, 트럼프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을 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으로 인디애나 주지사 마이크 펜스(Mike Pence)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함으로써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확보했다.<sup>17)</sup>

즉, 복음주의자들이 전통적으로 고수해온 정치적·종교적 쟁점들을 트럼프가 해결하겠다고 강력히 약속하면서 양자 간의 동맹이 체결된 것이다. 동시에, 그들의 입장을 거부했던 민주당을 향해 거침 없는 언어로 맹렬한 비판과 공격을 퍼부은 것도 복음주의자들의 마음을 얻은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그의 거친 언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테러들과 싸우기에 충분한 전사(strongman)처럼 보이게 만들었다.”<sup>18)</sup> 그리고 실제로 적지 않은 공약을 거침없이 실행했다.

그런데 트럼프 지지자들과 그들의 지지 이유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한 학자들은 현재 트럼프를 가장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백인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동일하게 지적한다. 복음주의자들 중 라티노, 아시안, 흑인 복음주의자들은 기후 변화, 빈민 지원, 부자 징세 등에 대해 백인 복음주의자들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백인 복음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제가 아니라 인종 문제였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인종적 지위 상실을 두려워 한다. 자신들이 (다른 어떤 그룹들 보다) 더 심한 차별의 대상이란 인식이 그들이 트럼프에 표를 던지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sup>19)</sup> 백인 복음주의자들 중 81%가 2016년 11월 8일 트럼프에게 투표했다.<sup>20)</sup>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와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강력한 연대를 형성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17) 팀 앨버타, 『나라 권력 영광』, 47.

18) John Fea, “The fear sweepstakes: How Trump captured the white evangelicals voted,” Christian Century (July 4, 2018)

19) Janelle Wong, “This is why white evangelicals still support Donald Trump. (It’s not economic anxiety.),” Good Authority (June 19, 2018). <https://goodauthority.org/news/this-is-why-white-evangelicals-still-support-donald-trump-its-not-economic-anxiety/> (2025. 9. 3 접속).

20) Kenneth Bieber and Jaco Beyers, “The Allegiance of White American Evangelicals to Donald Trump,” Exchange 49 (2020), 148.

#### 4. 정당화

트럼프가 복음주의자들과 동맹관계를 형성했지만, 전폭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즉, 그의 도덕적·종교적 한계 말이다. 아무리 트럼프가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의 정치적 종교적 의제에 동의와 지지, 실현을 약속해도 이미 노출되고 입증된 과오와 한계를 무조건 덮고 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해법 중 하나가 바로 트럼프를 구약의 다윗 왕이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에 비유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과 트럼프』(God and Donald Trump)의 저자, 스티븐 스트랭(Stephen E. Strang)은 테드 크루즈(Ted Cruz)를 지지하던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때, 나는 이미도널드 트럼프와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 사이의 비슷한 점들을 인식하고 있었다. 고레스 대왕은 이스라엘이 포로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방인이었다. 나의 경우,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레스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도널드 트럼프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나도 그가 기독교적 쟁점들(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믿는 것의 정반대의 것들)을 지지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를 지지했다.<sup>21)</sup>

로저 월슨(Roger Wolson)은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고레스에 비유하는 이유를 보다 상세하고 분명하게 설명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그를 “우리의 고레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비록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의 성품도 의혹 투성이지만, 참되고 진짜이며 진정한 기독교를 불법화하기로 작정한 세속적이고 심지어 반기독교적인 정치적 좌파로부터 미국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적 미국”을 구하고 방어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과 동성 결혼을 “뒤엎고,”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이들)이 게 이들과의 사업을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연방 판사들과 대법원 판사들을 트럼프가 임명하리라 믿고 희망한다.<sup>22)</sup>

이처럼, 트럼프를 지지하는 복음주의자들은 그의 한계를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고레스 같은 이방인도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이 트럼프 같은 사람도 미국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트럼프처럼 신학적·윤리적 흠이 많은 사람도 그들과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면 얼마든지 동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21) Strang, Trump Aftershock, 58. Kenneth Bieber and Jaco Beyers, “The Allegiance of White American Evangelicals to Donald Trump,” 152에서 재인용.

22) Roger Willson, “Is Trump ‘Our Cyrus?’ A Critical American-Christian Explanation and Response,” Roger E. Olson (27 August 2018). Kenneth, 151.

## 5. 비판과 반작용

필립 고르스키는 트럼프의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태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정부, 언론, 법원 등에 대한 자의적·일방적 통제, 그리고 대중들에 대한 선동과 포퓰리즘적 대응이 미국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 위협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천천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포퓰리즘 형태의 권위주의적 통치로 장래에 대체될 것이란 진정한, 그리고 가중될 위험이 존재한다. 언론 위협, 대중 선동, 유권자 억압, 대법원 재구성, 심지어 무장한 민병대 등, 권위주의적 퇴보를 위한 필수적이고 충분한 여러 여건들이 서서히 조성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적 문화와 제도들이 이런 발전을 이겨낼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sup>23)</sup>

케네스 비버와 제이코 베이어스(Kenneth Bieber and Jaco Beyers)는 미국 백인 복음주의자들과 트럼프 간의 유착관계를 경계했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종적 이익을 위해 트럼프를 맹목적으로 지지할 경우, 복음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기대했던 현실적 이익마저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백인 미국 복음주의자들에게 호소력을 지닌 것은 민족성과 종교 측면에서 이상적인 지배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적·지리적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개인적 회심과 선교적 헌신이라는 복음주의적 가치들을 대체하고 있다. 새로운 우선적 과제들의 보존을 열망하면서,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 안에서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왕같은 인물을 발견한다. 그래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존해 줄 사람으로 그를 추앙한다. 하지만 자신들이 진정으로 충성한 결과는 트럼프가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종교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과 정반대의 것이 될 수도 있다.<sup>24)</sup>

조단 빌체즈(Jordan Vilchez)는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가 의사당 습격을 선동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인민사원(Peoples Temple)의 짐 존스(Jim Jones)를 떠올렸다. 자신의 추종자 900여 명을 집단 자살로 이끌었던 최악의 이단 교주 짐 존스를 트럼프 안에서 발견한 것이다. 권력에 대한 과도한 집착, 반대에 대한 극단적 불관용 등 양자의 유사점을 비교한 후, 빌체즈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23) Philip Gorski, "Why evangelicals voted for Trump: A critical cultural 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 Vol. 5 (2017), 349.

24) Kenneth Bieber and Jaco Beyers, "The Allegiance of White American Evangelicals to Donald Trump," Exchange 49 (2020), 163. 정태식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과 트럼프 간의 이런 정치와 종교 동맹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펼친 여러 정책이 보여주듯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지향을 가진 복음주의가 상대적이고 특수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게 만들 뿐이라는 비판을 받게 했다." 정태식, 『21세기 제국의 정치와 종교』, 177.

우리 지도자들의 정신 건강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신적 안정성, 외교적 능력, 공감 능력, 시민들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 그리고 직업적·인격적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는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짐 존스와 도널드 트럼프를 겪어본 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런 자질들이 부족할 경우, 우리나라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sup>25)</sup>

#### IV. 트럼프와 한국교회의 관계

##### 1. 전광훈

한국 개신교 극우세력의 아이콘인 전광훈은 트럼프를 추앙한다. 2019년 11월 「뉴욕타임스」 아시아판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전광훈은 “전형적인 서구 우파 포퓰리즘의 전략을 사용”하고, “트럼프를 동경”하는 특징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2017년 방한했을 때, 그는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열렬히 환영했으며, 그가 “이민자를 통한 미국의 이슬람화를 막았다”고 치하했다.<sup>26)</sup> 2018년에는 스티븐 E. 스트랭의 『하나님과 트럼프』를 전광훈 가족이 운영하는 출판사 ‘퓨리터퍼블리싱’에서 출판했다. 전광훈은 이 책의 추천사를 썼으며, 2019년 2월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자신의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식의 2부 행사로 이 책의 출판기념식을 가졌다.<sup>27)</sup> 한편, 2025년 1월 7일, 전광훈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고, 개인적으로 트럼프와 10분간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미국까지 갔지만, 취임식 참석과 대통령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또한, 2025년 8월 30일에는 자신이 직접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내 윤석열 석방을 요청했고,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는 사랑제일교회가 “한국교회와 자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점은 너무도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덮어썩우기 수사와 종교 탄압을 자행해온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sup>28)</sup> 이처럼, 전광훈은 기본적으로 트럼프를 추앙하고, 어떻게해서든 그와 관계를 맺어보려고 분투하는 것 같다.

##### 2. 김장환

김장환 목사는 프랭클린 그레이엄과 친분이 두텁다.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원로목사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며 전 세계침례교연맹 총재를 지낸 김장환 목사는 미국 개신교계와 정계에 폭넓은 인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973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서울집회 때 그의 설교를 통역한 이래, 그와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8년, 미국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맡았으며, 2022년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살렛에 위치한 미국 기독교 명소 “빌리 그레이엄 라이브러리”에 김장환 목사의 이름을 딴 “빌리 김 홀”(Billy Kim Hall)이 세워졌다. 이 홀의 개관식에서 빌리 그레이엄의 장남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환영사를,

25) Jordan Vilchez, “Recognizing Toxic Leadership: The Similarities of Jim Jones and Donald Trump,” (September 29, 2021) ([https://jonestown.sdsu.edu/?page\\_id=111300](https://jonestown.sdsu.edu/?page_id=111300), 2025년 9월 13일 접속).

26) 이창수, “하나님과 트럼프 그리고 또 한 사람,” 『경향신문』 (2020. 8. 28).

27) 최현목, “전광훈 부녀 전국 조직도 추적” 『일요시사』 (2020. 8. 21).

28) 김유민, “외신도 호평한 ” 『서울신문』 (2025. 8. 26).

마이크 펜스(Mike Pence) 전 미국 부통령이 축사를 맡았다.<sup>29)</sup> 현재는 트럼프의 측근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와 친분이 두텁다. 한 예로, 2023년 6월 3일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50년 기념대회”에서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설교했는데, 이 대회를 성사시키는데 김 목사도 깊이 관여했다.

### 3.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폴라 화이트의 오랜 동역자다. 트럼프 집안의 영적 멘토로 알려진 폴라 화이트 목사는 지난 10여 년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세계교회성장대회”에 강사로 꾸준히 참여해 왔다. 이 목사는 그녀를 통해 트럼프 집안과도 관계를 맺게 되었고, 2024년에 4월과 8월에 트럼프 2세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방문했다. 특히, 8월에는 “빌드업코리아 2024”에도 참석 중이었는데, 25일 주일에 방문하여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했다. 이날 간증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이후 큰 화제가 되면서, 트럼프 2세와 이영훈 목사의 관계에 세간의 관심이 높아졌다.<sup>30)</sup> 뿐만 아니라, 이영훈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국민일보」의 보도를 통해, 우리는 그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목사는 공식 일정 첫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하는 내각 리셉션에 참석하며 19일 오후에는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열린 ‘마가 승리 집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Victory Rally)’에도 초청받았다. 취임식 당일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뒤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서 백악관까지 이어지는 축하 행진에도 동참한다. 이날 오후 6시 워싱턴 타임스빌딩에서 열리는 다문화 연합 취임식 축하 무도회와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열리는 스타라이트 축하 무도회에도 참석한다.<sup>31)</sup>

### 4. 정용진

온누리교회 집사인 신세계 그룹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막후 실세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2세와 매우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둘다 보수적인 신앙인으로서 공통된 정치적·사업적 이해관계로 급속히 가까워졌고, 2024년 12월에는 트럼프 2세의 주선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택에서 대통령과 독대한 적도 있다. 이들 간의 긴밀한 관계는 트럼프 취임식(2025.1.20)을 통해 단적으로 입증되었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입장하지 못했던 이날 행사에 단지 600명 정도만 수용 가능했던 의사당 중앙홀에 정회장 부부가 조현동 주미대사와 함께 유일하게 참석했으며, 그날 저녁 워싱턴 D.C 중앙역인 “유니온스테이션”에서 열린 “스타라이트 볼”(Starlight Ball, 트럼프 측이 선별한 VIP만 모이는 사교 행사)에 초청받았다.<sup>32)</sup> 올해 5월에는 정 회장이 트럼프 2세를 초청하여 자신이 소유한 조선팰리스 강남호텔에서 한국 재계 지도자들과 1:1 면담을 주선했다. 한편, 그는 2023년 “한국과 미국의 다음 세대 리더들을 초청해 함께 예배하고 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빌드업 코리아를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sup>33)</sup>

29) 백성호, “빌리 그레이엄 라이브러리에 김장환 목사 이름 딴 '빌리 김 홀' 설립” 「중앙일보」 (2022. 12. 19).

30) 하수영, “한국 교회에 트럼프 장남이?... '父 암살 시도' 언급 재조명.” 「중앙일보」 (2024.11. 7).

31) 장창일·박용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내 교계 인맥은 누구?” (2025. 1. 19).

32) 전성훈, “[트럼프 취임] 기업인 다수,” 「연합뉴스」(2025. 1. 21).

## 5. 김민아

이민 1.5세 유튜버(엠킴TV) 김민아(1989-)는 “미국스타일 정치교육 컨퍼런스”인 빌드업 코리아(Build Up Korea)를 2023년 창설했다. 2020년 시작된 엠킴TV는 “미국 정치를 크리스천 보수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생명존중 등을 강조한다. 2023년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는 빌드업코리아도 기독교세계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핵심가치로 삼고, 미국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대표적 인물들을 강사로 초청하고 있다. 2024년 제2회 빌드업코리아에 트럼프 2세가 초청되었고, 트럼프 당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터닝포인트 USA” 설립자이자 대표인 찰리 커크(Charlie Kirk)도 강사로 참석했다. 트럼프를 “하나님을 인정하며 따르는 겸손한 크리스천”이라고 믿는 김민아 대표는 트럼프 2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명삼 교수는 “청년 공화당 활동을 했던 김민아는 미 극우와 핫라인이 있고, 이를 통해 한국 극우 진영과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sup>34)</sup> 「시사 IN」 김수혁 기자는 빌드업 코리아의 목적이 “선교사들이 개신교를 전파했듯,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한국에 이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sup>35)</sup>

## V. 결론

트럼프는 일관된 정치철학에 따라 국가를 경영하는 소신 있는 정치가가 아니다. 또한, 분명한 신앙적 체험이나 명확한 신학적 입장에 근거해서 교계와 소통하는 신실한 기독교인은 더더욱 아니다. 뿐만 아니라,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 언어와 행동에 책임을 지는 존경할 만한 공인도 아니다. 오히려, 그는 기존의 통념을 가볍게 무시하는 자유분방한 생각과 행동으로 악명이 높다. 무자비하고 공격적인 사업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 한마디로, 그는 매우 실용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업가이고, 그 연장선에서 ‘미국, 백인, 남성, 보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극우주의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를 펼치고 있다.

즉, 다양한 민족, 인종, 계급, 젠더, 종교가 존재하는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담당하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종교적 역할과 책임 앞에서 트럼프는 매우 편파적이고 피상적이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무수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끝없이 협력하며 조화와 상생을 추구해야 하는 시대에 트럼프적 사고와 태도, 정치와 외교는 매우 부적절하고 심지어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의 내전들을 연구한 바버라 F. 월터(Barbara F. Walter)가 미국의 내전을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sup>36)</sup>

33) 박효진·신은정, “받은 은혜 나누는 용진이형… SNS 형제들과 ‘깨알 소통’,” 「국민일보」 (2024. 2. 6); 김수혁, “마가(MAGA) 복음 행사장에서 목격된 ‘신세계’ ‘정용진’의 흔적,” 「시사 IN」 (2025. 9.12).

34) 김남일·정인선, “‘코리아 마가’,” 「한겨레」 (2025. 9. 8).

35) 김수혁, “마가(MAGA) 복음 행사장에서 목격된 ‘신세계’ ‘정용진’의 흔적.”

36) “오늘날 미국은 어디쯤 와있을까? 미국은 아노크라시의 문턱에 선 파벌화된 나라로, 빠른 속도로 공공연한 반란 단계로 접근하는 중이다. 믿기 어렵지만, 내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의사상 습격 사건을

이런 트럼프식 정치, 즉 트럼프주의에 백인 남성 복음주의자들이 거의 컬트 수준으로 열광하고, 트럼프 주위에 극우적 성향의 목회자들이 집결해 있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부적절하다.<sup>37)</sup> 그들 대부분은 트럼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헌신했던 열렬한 트럼프주의 지지자들이며, 동시에 강력한 기독교 민족주의 추종자들이다. 그들은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편파적 지지에 안도하며, 트럼프의 비도덕적·폭력적 의식, 발언, 행동, 정책에는 대단히 관대하게 반응한다. 반면, 전쟁, 무기, 환경, 시장, 성, 복지, 세금 등에 대해선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결국, 이런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간 관계와 권력 구조는 트럼프의 정책과 정치 모두를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면서 변화나 개선의 기회를 차단한다. 동시에, 미국 복음주의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모든 민족을 향해 보편적 진리를 전하고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할 교회가 미국 같은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사회에서 차별과 갈등, 불안과 긴장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서로에게, 그리고 미국과 세계에게 불행한 만남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극우 기독교 세력과 트럼프주의자들 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상호간의 교류와 소통이 활발하다는 것도 매우 불길한 소식이다. 만약 한국의 친 트럼프 기독교 인사들이 과거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처럼, 한국과 미국, 북한과 미국, 남한과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평화와 화해의 중재자로 자신들의 친분과 영향력을 사용한다면 정말 역사에 소중한 발자국을 남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처럼, 자신들의 개인적 욕망과 집단적 이익을 위해 그런 인맥과 영향력을 편파적·차별적으로 사용한다면, 한국교회와 정부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평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안타까운 비극이다.

따라서 한국의 친 트럼프 인사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예외적인 특권의 무게를 자각하고, 그것을 한국교회의 건강한 발전과 한미 관계의 증진, 미국의 책임 있는 세계 경영을 위해 예언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한국교회의 진보적 인사들은 친 트럼프적 개신교 목회자들이 극우로 경도되지 않도록 견제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공존해야 할 이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극복하기 쉽지 않은 정치적·신학적 차이들에 집착하는 대신, 함께 직면하고 대처해야 할 공통 과제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고민하고 협력할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 일의 성공 여부가 한국교회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며,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사람들부터 용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매우 어렵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숙제다. 

계기로 이제 정부는 극우파 단체들이 미국과 민주주의에 제기하는 위협을 간단히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1월 6일은 적어도 노골적으로 폭력공로 나아가고 있는 일부 단체-오퍼 키퍼스 등-가 내놓은 중대 발표였다. 군중의 다수는 <2021년 1월 6일 MAGA 내전>이라고 적힌 검은색 팻말과 티셔츠를 통해 이런 의도를 선포했다. 실제로 의사당 습격은 공공연한 반란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조직적인 공격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충분했다.” 바버라 F. 월터,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유강은 옮김 (서울: 열린책들, 2025), 200.

37) 케네스 애덤스(Kenneth Alan Adams)는 “많은 트럼프 추종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추앙한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컬트가 뿌린 독을 미국이 막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 Kenneth Alan Adams, “The Trump Death Cult,” *The Journal of Psychohistory* 48 (4) (Spring 2021), 257.

# MEMO